



▶ 고하농장 비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봉현·양남숙씨 내외

## 철저한 분석으로 높은 등급 돼지 만든다 전남 함평 “고하농장”

취재 : 조진현

### 축산물등급판정소 선정 2004 돼지고급육부문 최우수상 수상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선정하는 2004년도 돼지부문 최우수 고급육생산농가로 전남 함평 한석봉씨가 선정되었다.

한석봉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년간 총 2,879두를 출하하였으며, A등급 출현율이 75.8%, A·B등급 출현율 93.7%를 나타냈다.

현재 한석봉씨가 운영하고 있는 고하농장은 1천두 규모이며 2-Site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번식농장은 목포시 고하도에, 비육농장은 전남 함평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육농장은 한석봉씨의 동생인 한봉현씨가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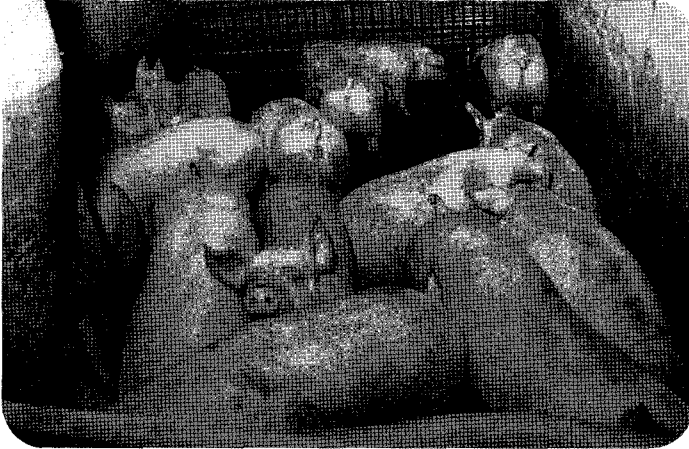
고하농장을 찾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A등급 돼지를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자.

### 어떻게 높은 등급을 받는가?

첫째, 출하체중을 113~116kg으로 철저히



▶ 고하농장은 1년간 총 2,879두를 출하하여 A등급 출현율 75.8%, A·B등급 출현율 93.7%를 받아 2004년 돼지고급육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한봉현씨와 자녀 세명이와 민주.



▲ 출하체중을 113~116kg으로 철저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맞춘다.

한봉현 사장은 고하도에서 월 2, 3회 자돈을 받는다. 옮겨온 자돈은(약 70일령) 약 40일간 육성돈사에서 머무르다 다시 비육돈사로 이동하게 된다. 총 사육일수는 약 175일경. 그러나 같은 날 들어온 돼지가 꼭 같은 날 출하되지는 않는다. 보통 한 돈방에서도 체중별로 2, 3회에 걸쳐서 제대로 된 체중일 때 출하된다. 물론 그렇다고 돈방을 바꾸어가며 쳐지는 돼지들을 섞지는 않는다. 특별히 위축되는 한 두 마리를 제외하고는 2, 3차에 모두 출하된다. 고하농장은 전 돼지를 목우촌에 출하하고 있으며 목우촌의 등급별 가격 산정방식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둘째, 낮은 등지방의 응돈을 사용한다.

주로 체중과 등지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 등급기준에서 등지방 두께 조절은 필수사항. 한봉현 사장은 출하돈의 등지방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 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소에서 얇은 등지방을 가진 응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셋째, 철저한 관리를 실시한다.

고하농장에서 출하되는 돼지는 어두운 새벽에 농장에서 출발하여 아침 일찍 도축장에 도착한다. 함평에서 김제 목우촌 육가공공장까지는 2시간이 걸리는 짧은 거리는

만 거리에도 불구하고 한봉현 사장은 당일 출하한 돼지가 당일 도축될 수 있도록 출하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당일 도축하면 지육률이 1%는 더 나온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한 한봉현 사장과 부인 양남숙씨는 돈사 옆 자택에 거주하면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돈사에서 보내고 있다. 최신식 돈사는 아니지만 한봉현씨 부부의 깊은 정성은 돼지들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고 있다.

### 철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고하농장 비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봉현씨는 39세의 젊은 양돈인이다. 벌써 양돈업을 시작한지 10여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높은 성적과 더욱 많은 수익을 위해 부

<표 1> 고하농장 최근 1개월간 등급판정 결과(2004. 12. 1~31)

(단위 : 두, %)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합계
	두수	비율	두수	비율	두수	비율	두수	비율	두수	비율	
암	81	77.1	19	18.1	2	1.9	3	2.9			105
수					1	100					1
거세	94	79.7	19	16.1	4	3.4	1	0.8			118
등급별소계	175	78.1	38	17	7	3.1	4	1.8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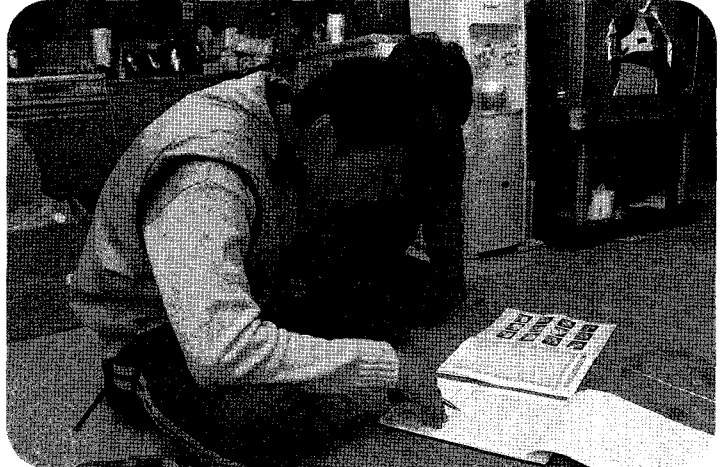
단히 노력하고 있다.

75%의 높은 A등급 출현률도 지난 6여년간 한봉현씨가 노력해 온 결과가 열매를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사장은 출하시마다 출하된 돼지 성적을 철저히 분석한다. 요즘은 당일 출하결과가 당일 나오기 때문에 출하한 날 저녁은 어김없이 성적 분석에 여념이 없다.

“B등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A등급과 25,000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B등급까지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현 등급판정 기준에서는 출하체중과 등지방이 중요하다. 한 사장은 출하체중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90만원의 체중계를 구입하여 약 2년간을 출하시 마다 체중을 직접 측정하는 열성까지 보였다. 정확한 113~116kg 출하가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그의 고집스러운 열성이 오늘의 그가 있도록 했다. 검정소에서 용돈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 ‘양돈자조금’ 책자에 나온



▲ 철저한 분석이 A등급 출현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출하한 날 저녁은 어김없이 성적분석에 여념이 없다.

중돈의 능력치를 밤새도록 검토하는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하다는 것이 부인 양남숙씨의 말이다.

등지방이 얇은 돼지를 만들기 위해 중돈을 분석해서 구입한 지도 벌써 6~7년. 용돈을 구입할 때 등지방, 증체율, 체형을 우선적으로

분석한다는 그는 벌써 용돈 구입의 프로다.

최근에는 등급판정 기준이 바뀌면서 체중이 상향조정되어 다시 기준을 바꾸어 중돈을 구입하고 있다.

한봉현 사장은 양돈업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다. 아니 바램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맛으로 만족을! 생산자는 고급육생산을 통한 높은 수익으로 만족을! 판매



▲ 각 돈방마다 입식일이 분필로 기록되어 있다.



▲ 고하농장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출하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당일 출하돈이 당일 도축될 수 있도록 새벽 일찍 출하가 가능하다.



▲ 단란한 한봉현씨 가족. 한봉현·양남숙씨 내외와 세영이, 민주.

(유통)업자에게는 높은 정육률로 만족을!

누구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으나, 직접 실천해 나가는 그의 모습에서 남다른 의지가 느껴진다.

개인적인 그의 목표는 A등급 출현을 80% 도달이다.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2005년, 조심스럽게 다짐을 해 본다. 양봉

〈표 2〉 고하농장 출하 정산서 예시(2004. 12. 9)

등	급	두수(두)	단가(원)
A	암	14	4,030
	수		
	거세	10	3,640
B	암	4	3,678
	수	-	-
	거세	3	3,451
C	암	1	3,454
	수	-	2,633
	거세	1	3,242
D	암	-	3,221
	수	-	2,305
	거세	-	2,945
E	암	-	2,272
	수	-	2,081
	거세	-	1,101
합 계		33	3,492
지육률(%)	67.80	지급률(%)	73.71

- 부산물 대금 : 231,000원
- 거세장려금 : 84,000원
- 계열장려금 : 165,000원

### 건강식으로서의 진가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0세를 넘어섰고 젊은 세대들의 체력이 기성세대에 비하여 크게 향상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식생활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식생활의 개선 중에서도 특히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들 수 있다.

일부에서는 동물성식품을 배격하고 극단적인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현재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국민영양

전체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성인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금 섭취와 더불어 콜레스테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금의 과다섭취가 본태성 고혈압과 관계가 있으며,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와 심장병 및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콜레스테롤을 마치 건강의 적(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영양소이다.

콜레스테롤은 신체의 세포막 성

### 돼지고기 상식



분으로서 인체에 다량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담즙산(膽汁酸) 및 성호르몬을 비롯한 각종 스테로이드호르몬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영양소이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B이 다른 육류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에 매우 좋다. 값싸고 맛 좋고 영양가 만점인 돼지고기로 국민건강을 향상시켰으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